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0월 25일(주일) 제1316호



11월 1일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 약정서 작성, 전화 신청, 온라인으로 참여

CGNTV가 11월 1일 정기후원약정 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를 실시한다. 약정서 작성, 전화 신청,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에서는 CGNTV 임직원 150여 명이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CGNTV의 사역과 선교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1~4

부 예배를 마친 다음 2020 CGNTV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를 방영한다. 방송인 박지윤과 가수 김영우가 진행하고, CGNTV와 동역해온 선교사, 목회자들의 간증이 이어진다. CGNTV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를 시청하면서 전화로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예배당 예배에서 실시되는 약정서 작성은 예배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신규 혹은 증액 약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CGNTV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드림통 수거행사도 실시한다. 드림통을 각 캠퍼스에 설치된 CGNTV 후원 안내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GN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CGNTV는 매년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5천여 명의 후원자가 CGNTV와 함께 미디어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문의: 02-796-2243

CGNTV 홈페이지: <http://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11월 8일까지 엔젤트리 사연접수

12월 13일까지 사연 게시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가 11월 8일로 2주 연기됐다. 현재까지 1,233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지난해보다 조금 저조한 편이다. 아직까지 2020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하지 않은 성도들은 서둘러 사연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더 힘든 연말을 보내게 될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가족, 이웃 주민, 동역자, 선교사, 선교사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엔젤트리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엔젤트리 사연접수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연대상자의 사연, 주소, 연락처, 이름, 선물 등의 정보와 사연을 접수한 성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1월 8일까지 접수된 2020 엔젤트리 사연은 12월 13일까지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사연을 뽑은 성도들은 11월 25일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선물을 발송하고, 늦어도 12월 31일까지 선물을 발송하여, 사회 선교본부에 피드백을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4434

/ 김영선 기자

드림온플러스 재팬(Dream On+Japan) 프로젝트

일본에 CGNTV 전용 수신기 설치해주는 캠페인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열리지 못하는 시점에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러브소나타 본부와 CGNTV가 함께 실시하는 '드림온플러스 재팬(Dream On+Japan)'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드림온플러스는 인터넷 기반의 CGNTV 전용 수신기(셋톱박스)를 설치해주는 캠페인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별도의 이용요금 없이 드림온플러스 수신기를 통해 CGNTV를 시청할 수 있다.

드림온플러스 재팬은 일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CGNTV 셋톱박스를 후원하면서 일본 선교를 이어가기 위한 프로젝트다. 일본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성도와 협력교회, 실행위원회 중에서 CGNTV 셋톱박스 장착을 희망하는 교

회와 개인에게 설치해줄 예정이다. CGNTV 셋톱박스를 후원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한 대당 15만 원이다.

이정환 목사(러브소나타 담당)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갈 수 없지만, 일본을 향한 마음을 CGNTV 셋톱박스에 담아서 선물하려고 한다"면서 "이 영적 선물을 받은 일본인들이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깨닫고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0-05904

(재)온누리 선교재단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신학, 존재론과 기원론에 대한 고찰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스티븐 슈바르츠는 말한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신론과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은 단순한 두 가지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이다. 그 존재 너머에 의미 있는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이 유신론이고, 그 존재 너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무신론이다.”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존재론과 기원론이다. 유신론에서 존재의 근원은 신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의 저 너머에 초자연적 존재인 신이 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미명하에 초자연성을 배제한다. 물질의 세계 너머 어떤 존재도 의미도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기에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 어린 아이들이 신화나 옛날이야기의 귀신을 믿는 것처럼 취급하며 “제발 철 좀 들라”고 말한다.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과학의 패러다임도 창조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뉴턴, 케플러, 파스퇴르 등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그분의 창조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과학을 연구했다. 그

러나 르네상스 이후 과학계와 교황청의 불화 속에서 과학자들은 학문적 진리를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 교황청의 종교적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이런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의 필요를 채워 준 것이 1859년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진화론이다.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 없이 다양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었고,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존재론과 기원론의 근거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칼 마르크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자신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의 사회변화(정-반-합)를 생물학의 진화론이 너무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 막 집필을 끝낸 <자본론> 1권을 헌정하고 싶다는 편지를 다윈에게 보내기까지 한다. 이처럼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진화론의 지면을 확대해 갔다. 이들이 학문 후속세대들을 포섭함에 따라 창조론의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과학세계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에는 큰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에 해당한다. 과학적 방법론이란 직접 관찰 가능한가, 실험실에서 같은 조건 아래

에서 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폭발에 의한 우주와 지구의 탄생, 진화에 의한 생명 탄생의 기원론은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제시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관찰 혹은 재현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네이트하르트는 “모든 얇은 그 기반이 되는 믿음을 필요로 하며 믿음이 이성을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믿음을 기반으로 해석되고 발전해 나아간다. 믿음의 근거를 불확실한 가설에 두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왜 이처럼 근거가 희박한 형이상학적 믿음인 진화론을 굳건하게 붙들며 창조론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가? 먼저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종교적 권위로 과학의 발전을 묵살했던 기억 때문에 과학영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창조론을 의도적으로 배척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 과학발견을 통한 산업혁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자신감이 영역주권 수호를 넘어 모든 학문분야를 지배하는 지위를 넘본다는 다른 관점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를 사용해서 초자연성을 논하는 신학이나 철학의 간섭을 배제하고 과학지식을 권력화하기 위해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힘을 다해 수호하고 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각 생물들이 어

떻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내는 학문이다. 반면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 내는 학문이다. 두 학문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탐구해서 각각에 내재된 계시를 찾고 해석해 내는 일을 한다. 따라서 신학과 과학은 하나님 계시의 다른 측면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결코 서로 배타적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형이상학에 빠진 존재론과 기원론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기독교 후속세대에게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학적 논리의 굳건한 기반임을 가르쳐야 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거 없는 진화론에 휩쓸리려는 욕구를 억제하는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학으로 무장된 학문 후속세대들 통해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길 그 때를 기대한다.

묵상: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기원론에 반박하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질문이 정곡을 찌르는 것이 될까?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30cm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남편은 머리오, 아내는 가슴이다. 남편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정체감을 확인하는 존재지만, 아내는 가슴으로 느끼고 공감하며 관계 속에서 정체감을 확인하는 존재이다.

어느 날 시대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남편이 “당신 참 힘들었지? 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 역시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런 일이야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일인걸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알아주니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감해주는 말에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졌다. 환해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남편은 ‘여자는 가슴으로 이해받고 느끼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한다.

어떤 가정사역자는 ‘30cm의 차이’가 인류의 비극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머리로 살아가고 여자는 가슴으로 살아가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30cm라는 것이다. 30cm밖에 되지 않는 머리와 가슴의 차이를 줄이지 못해 일어나는 비극이 바로 가정의 비극, 인류의 비극이라고 한다.

머리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 참 골치 아픈 여자야”, 심지어 “당신 참 골 때리는 여자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 “당신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미치겠어요”, 심지어 “아이고, 답답한 인간아! 내가 뭘 말하려는지 왜 그렇게 몰라”라고 말하며 절망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문제를 호소했는데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초연해보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에 애간장 녹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충고를 들을 때 가장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고 한다. 자

신들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이치를 따져가며 초연해지라는 비현실적인 충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남편의 마음인데 말이다. 아내의 마음을 머리로만 판단하려는 남편들의 어리석음이 아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비판하거나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저 아내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내는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낸다.

아내 또한 남편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지혜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일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때, 남편이 자신을 위해 해주었던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이야기로부터 자신의 판단을 보

류시키고, 마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이들 문제로 의논할 때도 남편에게 “당신이 도와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등과 같은 감사와 인정의 말부터 건네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같이 가슴으로 문제를 느끼게 된다.

머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일을 추진하고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가슴은 감싸 안고 어루만지며, 치유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곳에 부부의 하나됨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

느헤미야 6:1~16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대적하는 이들은 언제나 거짓을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거짓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며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된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모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 거짓을 분별하고, 교활한 음모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지혜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교활한 음모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위협들이 도리어 유다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성벽 재건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될 정도로 완성에 가까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성벽 재건을 막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공격의 초점을 바꿉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공격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느헤미야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영향력이 큰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백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교활한 음모

대적들이 교활하고 간교한 음모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음모에는 거짓, 속임수, 교활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교활한 음모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평화를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 합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매웠다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계셈이 내게 이런 전갈을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

었습니다.”(1~2절).

산발랏과 계셈이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웠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둔 때 마음이 들뜨고, 분별력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이때를 노리고, 놓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평화를 이용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출연한 이단사이비들은 공통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이용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면하는 것은 칼처럼 우리를 날카롭게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일 없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이요,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술 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칼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수술을 받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 위협을 일삼는 자들이 갑자기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평화가 진정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네 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제안하면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

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3절).

이것이 지혜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결한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깁니다.

거짓 소문으로 무너뜨리려 하다

둘째, 거짓 소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산발랏이 다섯 번째 거짓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계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에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6~7절).

이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친서까지 받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벽이 재건되면 유다 백성들이 돌변해서 반역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자신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거짓을 꾸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보내는 편지는 보지 못하도록 인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곳까지 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이 왕에게 전해진다면 느헤미야는 당장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해명하려고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

다.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자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락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 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가 거짓 소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더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 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며,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8~9절).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짓을 알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일에 집중했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해명은 간단하게, 그러나 기도는 깊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순결한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음모

셋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음모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은 반드시 매수해서 사람들을 확보합니다. 거짓된 일에 기쁘게 참여할 이는 없습니다. 모두 보상과 대가를 쥐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매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세 번째 음모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므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므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10절).

(14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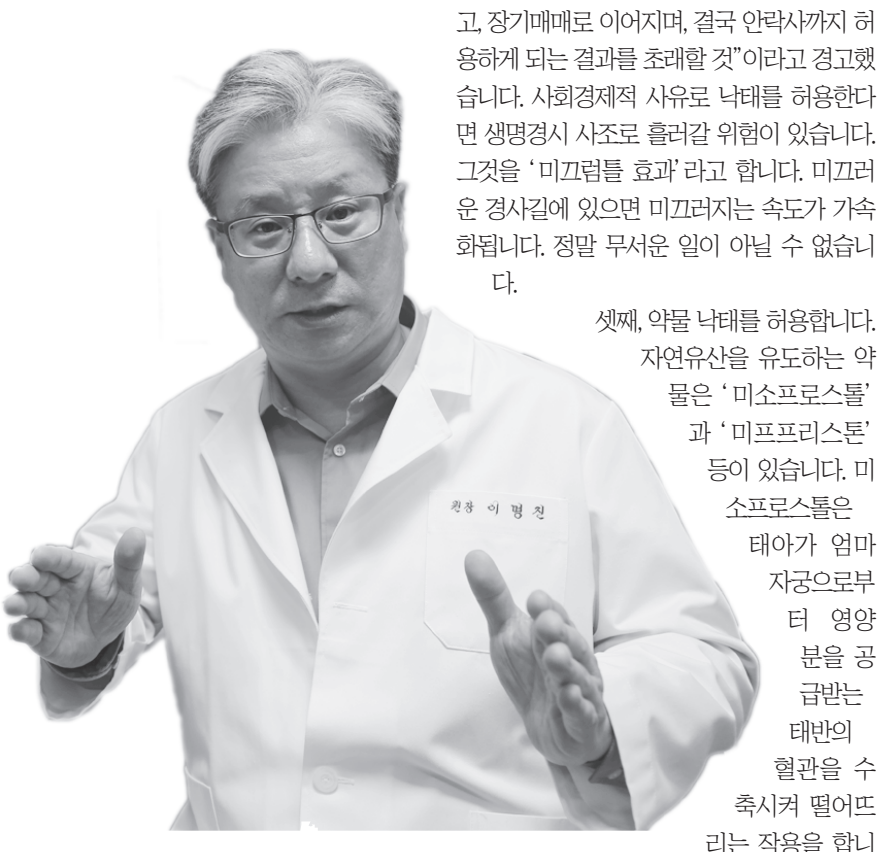
이슈진단_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생명윤리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수)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요지는 단 하나다.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을 만나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고, 장기매매로 이어지며, 결국 안락사까지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생명경시 사조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끄럼틀 효과’라고 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에 있으면 미끄러지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약물 낙태를 허용합니다. 자연유산 유도하는 약물은 ‘미소프로스톨’과 ‘미프프리스톤’ 등이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태아가 엄마 자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태반의 혈관을 수축시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다. 미프프리스톤은 자궁을 수축해서 아기를 밀어내는 약물입니다. 임전 출혈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 약물은 임신 7주 이상 된 산모에게 쓰면 위험한데, 법률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약물 낙태는 곧 무분별한 낙태와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16세 이상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16세는 고등학교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숙려기간이 지나면 낙태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혼할 때도 숙려기간이 한 달(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달) 이상 걸리는데 낙태를 24시간 안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경시 가치관이 만든 끔찍하고 잔인한 법안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대안(代案)이 있습니까?

“우선 낙태 결정가능기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낙태 결정가능기간을 24주에서 22주 이내로 결정하라고 권고했

는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항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낙태 결정가능기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 유도 약물의 처방, 상담, 시술 의사를 구분해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태 상담 이후 숙려기간도 24시간이 아니라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성행위로 인한 결과(임신, 낙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현재 낙태 상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들 중에서 상당수가 낙태를 옹호합니다. 낙태 상담의 목적은 낙태 권장이 아닙니다. 태아를 살리고, 임신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반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 입양을 제한하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서 입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안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목사님들이 낙태 반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태아는 지극히 작고 약한 자입니다. 태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낙태를 경험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모들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자립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저는 침묵은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낼 때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도 행동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

더라도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교회와 크리스천은 ‘말씀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 시류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갈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생명길을 걸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올바른 건강한 자기결정권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생명권보다 소중하고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안지고 권리와 편리만 누리는 것은 방종입니다. 이번 낙태죄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문의: 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24주)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의학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시청자들의 고백 “CGNTV는 나에게...”

위로자, 오아시스, 롤모델, 하나님과의 약속

CGNTV가 11월 1일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을 개최한다. 시청자들은 CGNTV를 후원하는 일은 “산꼭대기에서 눈뿔치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CGNTV 정기후원금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CGNTV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 콘텐츠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커다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CGNTV를 시청하고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시청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역만리(異域萬里) 선교사들에게 모국어로 된 신앙 프로그램은 정말 크고 따뜻한 위로로 다가온다. 방글라데시에서 20년 동안 농장사역을 했던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 부부에게 CGNTV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최고의 위로였다.

지구촌 최빈국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서원했던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는 20년 전 방글라데시 뭍따가차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서 자동차로 네 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수많은 역경과 부딪혔다. 농장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슬람의 공격으로 현지 사역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 받지 못한다고 절망할 무렵 CGNTV가 찾아왔다.

“그 시골에 누가 오겠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CGNTV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의 자녀 윤신에 자매(SNS공동체)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늘 부모님 걱정뿐이었는데 CGNTV를 시청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유일한 한국인 가정이었던 부모님께 한국어 방송과 예배를 TV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닌데도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주고 CGN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는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를 자양분 삼아 사역을 이어나갔다. 그 열매가 풍성했다. 방글라데시 뭍따가차 지역이 주민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었다. 윤연섭, 이양숙 선교사의 막내딸 윤신에 자매는 CGNTV의 열혈 후원자가 되었다. 부모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준 CGNTV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CGNTV는 저의 첫 번째 후원지입니다. CGNTV에서 방영되는 예배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토크 프로그램으로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작게 후원하고 있지만 더 많이, 더 널리 CGNTV를 후원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CGNTV를 시청하고 후원할수록 감사와 은혜가 배가 된다고 고백하는 시청자들(왼쪽부터 윤연섭 선교사 가정, 서은주 자매, 김호숙 성도).

우리 가족의 영적 오아시스

동북아시아 A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한 김마리아 선교사에게 CGNTV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와 같다. 김 선교사는 남편과 함께 교회개척과 각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훈련센터사역을 감당했다. 한국에서 유학한 현지인 목회자의 소개로 CGNTV를 알게 됐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다양한 영적 공급과 성경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한 지역은 사역자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더 목말랐고 절실했습니다. 그때 CGNTV를 만났습니다.”

김마리아 선교사는 사춘기를 보내던 민감한 자녀들과 홈스쿨링을 할 때가 영적 공급이 가장 절실했다.

“CGNTV를 만나고 저의 영적인 갈급함이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자녀 양육과 내면의 치료와 관계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긴장하며 사역하다가 쉬는 시간에 CGNTV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자 힐링이었습니다. 큰딸도 CGNTV를 시청하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주변에 함께 이야기 나눌 가정도 없는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CGNTV는 우리 가정에 생명수를 제공해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김마리아 선교사는 지금 국내에서 선교사 파송단체 본부를 섬기고 있다. 여전히 CGNTV를 애청하고 있다. CGNTV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콘텐츠가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CGNTV는 나의 롤모델

4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 ‘EJ 찬양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주 자매(그린스보르한인 장로교회)에게 CGNTV는 롤모델이다. 청소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서은주 자매는 CGNTV를 시청하며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CGNTV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크리스천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님의 추천으로 CGNTV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한국 교회 역사와 선교사님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CGNTV와 함께 성장한 서은주 자매는 CGNTV의 미디어선교 비전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 CGNTV와 함께 미디어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4년 전 유튜브에 ‘EJ 찬양연습실’ 채널을 개설했다. 지금까지 광고 없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J 찬양연습실’에서는 찬송가를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등 각 화성별로 나누어 연습할 수 있는 영상들을 업로드 하고 있다. 구독자 3천 명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창조과학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CGNTV에서 제작한 이재만 선교사님의 영상들을 접하면서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세대들에게 제가 받은 창조신앙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저는 CGNTV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넘칩니다. CGNTV를 만나고 나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CGNTV는 하나님과의 약속

김호숙 성도에게 CGNTV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던 김호숙 성도는 40일 동안 선교에 대해 기도했다.

“기도할수록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장 선교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 그 방법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CGNTV를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김호숙 성도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매월 첫 매출을 CGNTV에 후원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크리스천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힘겨워 할 때 CGNTV를 후원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CGNTV가 필요한 곳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CGNTV 후원을 결정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호숙 성도의 미용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매출이 늘어 더 많은 금액을 CGNTV에 후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

“CGNTV를 후원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CGNTV 후원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후원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다가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CGNTV 후원을 계속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기고

“이 사람을 보라!”

카라바조와 치세리의 ‘에케 호모(Ecce Homo)’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왕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이다. 화려한 복장과 더불어 장식용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는 홀(笏: 관원이 관복을 입었을 때 손에 지니

는 수판)도 통치자의 힘과 권위를 상징한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왕관과 복식이 아니라 가시 나무로 열기설기 엮어 만든 면류관, 흠처럼 생긴 갈대나무, 누더기 같은 보라색 망토를 어깨에 걸친 차림으로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역대 화가들이 가장 즐겨 그린 소재 중 하나였다.

카라바조가 그린 ‘에케 호모(Ecce Homo)’ 역시 그런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다만 다른 화가들이 그린 빌라도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소심하고 불안한 모습이라면, 카라바조가 그린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고 태연자약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특징이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 표정이 다른 그림들과 무척 대조적이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 격동되어 있는 군중들 앞에 세운다. 그리고는 외친다.

“에케 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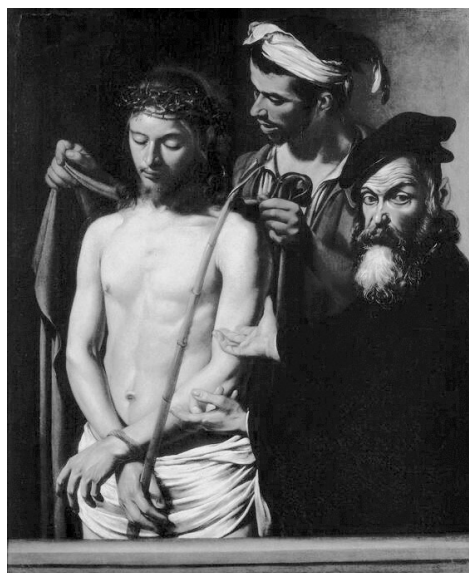
라틴어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는 뜻이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상황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다. 함께 묵상할 그림은 카라바조의 ‘에케 호모’(1606년)와 안토니오 치세리가 그린 같은 이름의 ‘에케 호모’(1871년) 이렇게 두 점이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끌려 나오시기 전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사람들은 승리의 상징, 부활의 상징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요 13:1) 모습을 보이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세상의 기존 전통과 규칙을 뒤엎는 섬김의 리더십의 전범(典範)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



카라바조의 ‘에케 호모’(왼쪽)와 치세리의 ‘에케 호모’(오른쪽).

랑하라”(요 13:34).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은 또한 당신이 포도나무임을 선포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그즈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화하셨고(마 21:13),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중하게 질책하셨다(마 23:2-3).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경하고 위험한 예수님 같은 인물을 그냥 좌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유다를 앞세워 캄캄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긴급체포한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증거도 없이 무고한 예수님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찌서 나를 치느냐?’”(요 18:23).

그들이 소집한 최고의회(산헤드린)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드디어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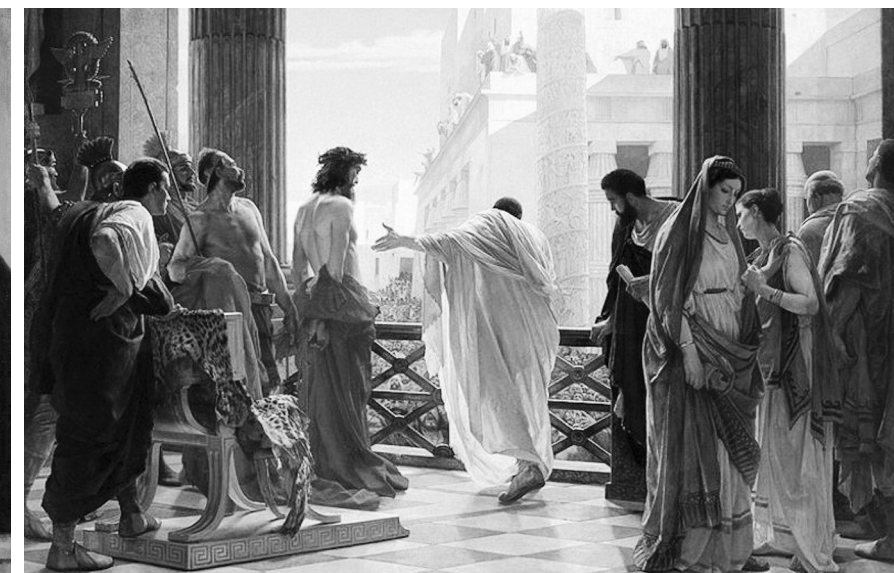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네 생각이나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이나? 너는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나?”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럼 진리가 무



엇이나?”고 물었지만 대답도 듣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영리한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자마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줘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놀란 빌라도는 병사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리고는 가시나무관을 엮어 씌우고, 보라색 옷을 입혀 군중들 앞에 다시 세웠다.

“보라, 이 사람을(에케 호모)!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다

오늘 묵상하는 카라바조의 그림이나 안토니오 치세리의 그림은 바로 이 장면을 포착했다. 치세리의 그림은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에케 호모’ 그림은 정면을 향해 예수님이 혼자서 혹은 빌라도와 함께 서 계신다. 치세리의 그림은 시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중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치세리의 그림 오른쪽에는 빌라도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등을 돌려 군중들을 외면하고 있다. 그녀도 남편처럼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심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요 19:7).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19:8)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유대왕국의 왕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중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요 19:15)는 말을 반복할 까닭이 없다.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이어 3개 국어로 명패를 붙이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하자 “내가 쓸 것을 썼다”(요 19:22)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그러나 빌라도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다. 심리학자 샌 포드의 말처럼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재의 사람인 빌라도가 영적이고 원형적인 실재인 예수님을 만나는 대 사건이었다. 심리학적으로는 빌라도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중차대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깊은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군중들의 집단적 사고,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짓치 못할 죄를 짓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대면까지 하고도 결국 ‘구태의연한 자기(old self)’에 매몰되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new self)’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빌라도 이때 빌라도가 회심했다더라면 사도 바울 이상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군중의 힘에 압도되었다. 빌라도를 압도한 군중의 힘을 치세리는 화면 한 가운데에서 빌라도를 바라보는 아니 우리를 바라보는 군중의 성난 눈과 입을 통해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치세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이 혹시 빌라도 아닌가? 아니면 저 성난 군중의 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는 기쁨의 여생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 그 은혜의 간증들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맞춤형 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이 지난 9월 25일부터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상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회 수 약 2천회를 기록하고 있다. 영상이 업로드 된 지 한 달 정도가 흘렀는데도 그 관심이 지금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부모들과 함께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 참가한 성도들의 간증이 아주 특별하다.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서 한 평생 사명이었던 가족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노래하는 간증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그래도 너희가 하라는 거 다 해볼게”

시집은 지 15년 되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망설이며 미뤘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흘러 버린 뒤였다.

몇 년 전 시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셨을 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했다. 그때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신청했다.

추석 당일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시청했다. 참으로 떨리는 순간

이었다.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셔서 시부모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했다. 정말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다. 영상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글쎄, 나도 예수님 부활이 막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싶었다. 낙담하던 그 순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너희가 하라는 거 다 해볼게.”

그날부터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다섯 장씩 읽으시며 예수님께서 만

나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 얼마 전 뵈었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니 참 좋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부모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3대가 모여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조용히 아버님과 어머니께 다가와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다.

/ 조소연 성도(서빙고 온누리교회)

“10년 만에 다시 친정아버지께...”

친정아버지를 위해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 신청했다. 작년에는 큰시누이를 초청해서 행복드림콘서트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때 집회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었다. 그분들을 보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 행복드림콘서트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낯선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걱정이 컸지만 그것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굳게 붙잡고 친정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 일념으로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에 참가했다.

10년 전 직장 신우회 선생님과 함께 세 번이나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유년부 교사 봉사를 하느라 아버지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가끔씩 아버지를 만나면 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를 통해 10년 만에 친정아버지께 다시 예수님을 전했다. 친정아버지는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시청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하셨다. 올해 초 둘째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 동생의 죽음 이후 나

에게 가족구원은 사명이 되었다. 올해 9월 초에는 아버지가 물고기 먹이를 주시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허리 골절상을 입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다. 친정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오히려 감사했다.

일찍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낸 친정아버지는 우리 4남매를 가르치고 출가시키느라 고생만 하셨다. 이제 친정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해서 확실한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친정아버지께서 여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김기성 권사(강동 온누리교회)

“화해와 생명으로 거듭나는 눈물”

시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행복드림콘서트 집회영상을 시청했다. 가수 노사연 씨의 노랫말에 내 눈가가 먼저 뜨거워졌다. 동서도 옆에서 흘쩍였다. 시부모님은 화면에 당신들의 사진이 나오자 무척이나 기뻐하셨다. 어느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짙어지고 계신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으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복드림콘서트에 신청한 것을 정말 잘했

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회영상 말미에는 나의 영상편지가 상영되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영상편지였다.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다.

시아머님은 제사 많은 종갓집 만며느리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다. 장남인 남편을 따라 처음 시어머님을 뵈었던 날 나에게 하신 첫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과 결혼 못한다.”

25년 전 그때 기억이 났다. 어머니와 한참을 부둥켜안고 울었다. 화해와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눈물이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미리 예쁘게 준비해 간 결신서 카드를 내밀었다. 어머니께서 “네가 예수를 봤냐?”고 물으셨다. 나는 “기도 중에,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세요”라고 대답했다. 시부모님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동그라미를 그리셨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권해드리는 것이니 받아

들이세요!”라고 간절히 외치는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두 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 제사를 기독교식 추도예배로 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셨다. 식사 전에 기도하자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 끝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주시기도 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쁨의 여생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함께 해주신 전도사역본부팀의 재능과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이애리 권사(양천공동체)



조소연 성도의 시아버지께서 성경을 읽고 있다.



김기성 권사가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읽어 드리고 있다.



이애리 권사의 시부모님이 결신서를 작성하고 있다.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길공동체 '라이브기도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매주 주일 드리던 예배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코로나 19가 깨닫게 해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단 하루의 예배, 단 한 번의 예배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스크 없이 마음껏 마시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모여서 순예배를 드리고,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여실히 알게 되었다.

이 시간들은 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수없이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려 몸부림쳤다.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높아져만 갔던 나의 자아를 주님께 다시 의탁 드리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모이지 못하는 시간에 지쳐갈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유튜브를 통한 예배,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김진민 형제는 온라인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다.

처음에는 유튜브로 온라인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줌(ZOOM)을 활용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축복이다.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단비와도 같았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지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묶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완전하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에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된다.

앞을 알 수 없고 수많은 변수들을 마주하면

서 낙망하며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를 알 수 없지만, 다음에 마침내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겠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질병의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상황에 매몰되어 주변을 둘러보는 시야가 없어져버린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슬기로운 일이다. 하지만 상황에 매몰되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그때의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기도의 불길인 길공동체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한국 교회,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예배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운행하심을 신뢰하는 은혜를 의지하며 의연하게 살아갈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의 행진을 기대해본다.

/ 김진민 형제(길공동체)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2000선교본부 비대면 사역 원격교육

영성과 전도훈련, 복음콘텐츠가 필요하다

우리는 중동 1국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노숙자, 노동자, 마약중독자, 아프리카계 난민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 카페거리 R에서 젊은이들과 거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사역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나라에도 확산되면서 정부의 이동제한 발표가 있었다. 온 나라가 정지됐다. 집 밖 100미터 이상 이동금지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만 있어야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위험성만 뉴스를 통해 알게 되어 두려움이 가득했다. 특히 동양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외출이 꺼려졌다. 동역하던 사역자와 섬기던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려움이 없는지,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물으셨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격려하는 입장에서 위로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과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감동이 있었다. 줌(ZOOM)과 왓츠앱(Whatsapp)을 활용해서 그들과 전보다 자주 교류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역자들과의 교류는 사역을 위한 만남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졌다.



A선교사는 비대면과 대면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의 마음을 더 깊게 만지는 계기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사역자들과의 만남은 이제 각자 집에서 식사하며 가족 간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역자들을 더욱 친밀함을 갖게 만들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외롭게 지내온 오랜 시간이 한순간 사라지며 이곳에도 우리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게 되었다.

장기간 계속된 자가격리 속에 우리가 전도

하고 섬기던 어려운 이웃들의 얼굴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동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이동허가를 받아야 했다. 현지인을 통해 이동허가증을 받아서 그들에게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를 들고 찾아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도 노숙자, 마약중독자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대면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의 대면은 그들의

마음을 더 깊게 만지는 계기가 되었다.

격리 지침이 느슨해져가는 시점에 관계가 있던 몇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논했다. 이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의 통일을 이루었다. 현지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했다. 우선 일대일제자양육을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고,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과 교회에 새롭게 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들도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 성장과 제자화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느슨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전도와 선교는 결국 가족과 사회(직장, 이웃 등)에서 형성된 개인의 관계에서 더욱 수월할 것이다. 성도의 각 가정과 직장 등 개인의 사회관계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개개인의 영성과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신앙 단계별 복음콘텐츠를 정리해서 SNS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A선교사(중동 1국)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간증

“한 사람이 어른이 되기까지 그의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장소들이 필요했을까. 하지만 그런 건 몰라줘도 된다. 당신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주시기만 한다면 고향은 그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얼마 전 한 예능프로에서 나온 자막이다. 자막을 읽으며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 자라온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담임선생님을 통해 말씀에 기초한 믿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절제되고 겸손한 삶, 교사의 사명 등을 배웠다. 또 방황하다 돌아온 교회에서 보조교사로 섬길 때 나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부장집사님,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다. 또한 섬김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많은 집사님들,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담임목사님이 계셨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도록 등 뒤에서 도와주고 믿어주고 지지하며 기도했을 많은 분들 또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



조정희 집사는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랑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기쁘다”라고 하셨을 것 같다. 나도 한 사람의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후에야 그때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닮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노 대신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롭게 되어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야기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 주심을 알렸을 것이다.

로마서 14주 강의를 통해 어릴 적 내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어른들이 기억났다. 또 내가 누군가의 뒤에서 한 사람의 어른이 되어주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과 함께 13주차에 목사님께서 하신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을 묵직하게 눌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교회 일에 무뎠던 것이고,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교만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마음 상태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다. 비단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깊이 공감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이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기도한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다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정희 집사(대전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지난 8월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를 주제로 온라인 강좌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는 순간 '온누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온누리교회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미자립 교회들에 대한 생각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된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자 수강신청을 했다. 강사이신 이강현 목사님은 철저한 강의 준비로 특화되신 분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먼저 이번 강의의 특징에 대한 목사님의 안내가 있었다. 첫째, 학문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강의에 포함되고, 각주가 많이 달려있고, 엄선된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 동영상은 1.5배속으로 보면 좋다는 안내였다.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보려면 최소 2~3배속으로 봐도 모두 볼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었다.

둘째, 부담은 갖지 말고 강의에 임해도 좋으나 각오는 하라는 안내였다. 강의 난이도에 대한 설명은 수강 후에 제출해야 할 숙제 두 가지를 소개함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셨다. 숙제



김영빈 집사는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강의를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다.

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 진리를 붙들면서 수용할 수 있는 뉴노멀은 무엇이 있으며(3가지 이상), 이를 수용한 실제 경험담을 기술하시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융합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융합적 노력은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나의 융합적 노력을 통해 사람들이 '신의 영역'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안(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도)을 포

함하여 논의하시오'였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로 야기되는 신앙에 관한 문제와 성도 간의 교제 부재로 인한 소속감 저하, 공동체 의식 문제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온라인 강좌라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교회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면서 성도들의 상황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해도 신앙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강의를 성실히 들었는지 확인하는 수업 방식과 시간을 들여야 제출 가능한 숙제 등 유의미한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2008년 어느 벤처캐피탈리스트에 의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이어진 삶도 그 당시에는 뉴노멀이었다. 세상은 늘 새롭게 변화되고, 인간은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신앙,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새롭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번 강의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고취하는데 유익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는 교회에 감사하다. 철저한 준비로 강의에 임해주신 이강현 목사님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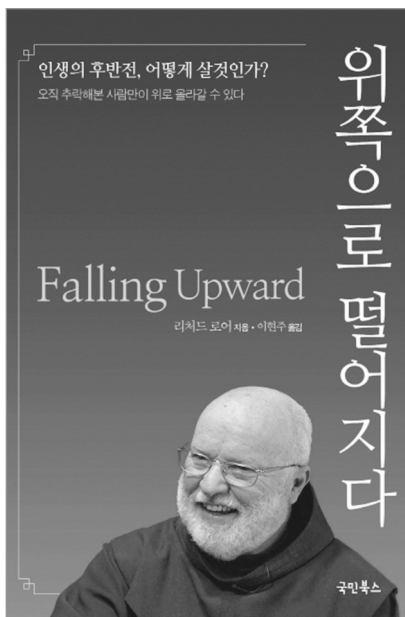
/ 김영빈 집사(양지 온누리교회)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영혼의 성숙을 향한 ‘더 먼 여정’



〈위쪽으로 떨어지다〉

리처드 로어 저 | 국민북스 | 14,000원

저자는 책을 통해 인생의 전반전은 그저 준비운동일 뿐 아직 완전한 여정이 아니며 진정한 인생의 승부가 결정될 ‘더 먼 여정(further journey)’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은 단절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전반부 인생의 단계를 잘

살고 잘 마쳤을 때 우리는 곧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꺼이 나아가게 된다. 오직 전반부 인생에서 실패와 몰락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후반부 인생의 ‘더 먼 여정’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책 전반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반부 인생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온전히 후반부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후반부 인생에는 우주가 추는 총체적 춤의 한 부분이 되는 것만으로 아주 좋다. 춤마당에서 누구보다 돋보이거나 더 잘 추는 모습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사람의 인생 의미는 자신을 돋보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데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를 돋보이려는 데 온 힘을 쏟으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으로 비극적이다. 그렇기에 역설적인 책 제목 〈위쪽으로 떨어지다(Falling Upward)〉를 주목하게 된다.

어떻게 아래가 아니라 위로 떨어질 수 있는가? 저자는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아래로

떨어진, 그것도 잘 떨어진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오직 추락해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신앙적 역설과 연결된다. 추락과 회복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안에 있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실은 위쪽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고 영혼의 온전함을 발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은 영혼의 성숙함을 말한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로 ‘본 아게인(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거듭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은 다르다. 삶의 목표가 다르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추락이 있다. 실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악할 때 강함이 되고,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는 역적인 법칙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자신이 떨어지고 추락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의 성품을 닮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 그것이다. 예수님은 인생의 전반전을 사는, 아

직 온전치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요 7:38)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후반전의 ‘더 먼 여정’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자.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및 지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듯 보인다.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책에서 말하는 후반전의 영혼의 성숙을 향한 ‘더 먼 여정’이 있기에 위쪽으로 떨어지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개인과 교회는 풍성한 영생을 누리고 전하는 존재가 기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후반전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서경남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전도 클리닉 - 1. 전도와 회심

회심(回心)에 초점을 맞춘 전도

전도자는 회심(回心)에 초점을 맞춘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마 4:17),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행 2:38)고 전도했다.

근래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현대 전도 방법은 사영리, 전도폭발, 다리에화일 것이다. 이 방법은 담대한 전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현대 전도 방법들의 장점은 ‘복음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크리스천이 실제로 전도할 수 있게 준비된다’, ‘훈련을 통해 크리스천의 신앙 성

장에 도움이 된다’ 등이다. 현대 전도 방법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회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도대상자들에게도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간과 복음 내용의 한계가 있다. 현대 전도 방법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과 복음 내용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 회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선교사 30여 명의 회심 간증문을 분석해 보니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15년 정도 걸린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필자의 경우는 20년 정도 걸린 것 같다.

현대 전도 방법에서는 전도자가 복음을 짧게 설명하고 즉시 ‘영접기도’를 촉구하고, ‘구원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회심과 참된 구원신앙은 복음을 듣고 즉시,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회심 없이 영접기도를 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생길 위험성도 있다.

기독교 용어 사용의 한계도 있다. 현대 전도

방법에서 구술과 전도지로 전달하는 기독교 용어들은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다.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거나 타세계관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을 경우 잘못 이해될 위험성이 있다.

소통 방법의 한계도 있다. 현대 전도 방법들은 대부분 전도자 중심의 소통 방법을 취하고 있다. 많은 현대 전도 방법들은 정해진 전도대본을 외워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문구로 대화를 시작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도 방법은 상대방의 문화, 종교, 세계관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패턴으로만 전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전도대상자에 따라 적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다(요 3:1-21; 4:1-14).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교수 크레이그 오토(Craig Ott)는 그의 저서 〈선교신학의 도전〉에서 이러한 현대 전도 방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신속한 복음전달에 대한 강조는 복음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얕은 회심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제자훈련, 교회개혁, 하나님 나

라에 대한 관심과 분리된 선포는 지상명령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과 분리된 결신을 강조하는 선포는 성경적 회심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넷째, 개인적 결단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는 불신자들의 회심을 목표로 복음을 분명하고, 차근차근 전하는 전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는 불신자(수신자) 중심의 소통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전도자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의 문화, 종교, 세계관에 적합한 언어와 소통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복음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를 준비시킬 수 있는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복상: 지금까지 회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전도 방법을 분석해 보고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조을희 선교사
(GMTC(한국선교훈련원) 교수)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값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목회자”



김기락 목사(서빙고 차세대 파워웨이브)

부족한 자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안수를 준비하는 동안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 중심에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후 12:10)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만큼 약한 자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크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한 명의 목회자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저히 값을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



이우람 목사(허브대학부)

목사 안수를 받으며 저의 신앙과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제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9년 동안 전도사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의 길은 좋고,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좇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 앞에 제 삶을 다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목회자”



안사무엘 목사(SNS청년부)

20대 중반 화요성령집회에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요한복음 10장 10~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게 심어졌습니다. ‘샅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교역자가 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 목회에 뜻을 두신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주 새신자가 들어오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코에 호흡이 다하여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한 블레싱

남양주 ‘워크스루 블레싱’, 평택, 대전 ‘순장 블레싱’

남양주와 평택, 대전 온누리교회가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한 블레싱 행사를 개최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워크스루 블레싱’을 열고 사역팀장들과 순장, 순모 등 공동체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다. 12월 중순까지 토요일예배와 일요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25~30명이 참석하고, 행사 시간은 20여 분 정도 소요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순장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순장 블레싱’을 준비하고 있다. 순장 블레싱은 11월 1일(일)과 8일(일)에 진행된다. 교역자들이 준비한 감동 선물,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 나누기 시

간 등의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지난 18일과 21일 세종교육관에서 ‘순장 블레싱’ 행사를 했다. 4개 공동체와 여성 사역팀 리더십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홍하영 기자

드림머스 청년부 특별주일에배

11월 1일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

대전 온누리교회 드림머스 청년부가 11월 1일 오후 2시 30분 6층 본당에서 특별주일에배를 드린다. ‘차별금지법 빠르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예배에서는 조영길 변호사(한국교회동성애대

책협의회 총괄전문위원장,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대표)가 강의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당 예배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특별주일에배를 드린다. 문의: 042-825-3642

부채고민이 있다면 ‘부채탈출119’

11월 30일까지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119’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부채탈출119는 전문가관과의 상담, 법률 자문을 통해서 개인부채와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혹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를 다운받아 11월 30일까지 이메일(skyaiaman@naver.com)이나 팩스(02-6455-2644)로 접수하면 된다.

부채탈출119에서는 기초상담, 진단, 대안검토, 실행지원, 관리상담 등 장기간 집중적인 관리를 해준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되며 1대1로 진행된다.

문의: 010-2636-3777

02-3215-3434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6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1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4122-7255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9일(월)부터 11월 11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가평 마이더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총 12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2182-9114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수강생 모집

10월 31일~12월 12일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부모반은 온라인(ZOOM), 청소년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부모반에서는 부부 이해와 역할, 청소년 이해와 소통,

자녀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청소년반에서는 QT 및 팀빌딩, 청소년비전과 진로 등을 주제로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215-5801

10월 세례자

■서빙고

심윤정 861006
이정원 700803
유아
김민상 180803
김준홍 이주현
임채진 181128
임진우 조주은

■양재

문미령 801224
정영근 781004
유아
권라온 181016

권 준 김경혜
김지한 190325
김대운 진윤정
김하린 190321
김대수 권예은
박하유 180531
박주호 이현정
배수민 180414
배준국 조민아
윤여엘 180422
윤종현 백윤미
이시윤 190610
이명섭
이환희 190216

이주성 김민정
임라희 180620
임지산 김지희
임지연 180508
임정우 방희연
전지오 181119
전민준 최연희
정아레 180324
정동훈 김현정
최하이 180917
최철현 임혜진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동경원 851222
박성훈 960125
윤준석 860103
최유진 910119
입교
김소해 950515
SNS
김은아 930713
김희재 940221
장현동 920502
입교
이시아 930707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11월 1일~11월 29일 온라인 강의

창조신앙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인류의 기원과 진화론 바로알기’, ‘노아 홍수 사건과 화석과 지층’, ‘지구와 우주’, ‘패러다임과 영적 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1월 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교재비).

창조신앙스쿨은 창세기 및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4658-0987

■ 어느 선교사의 묵상



그리고 순교를 생각한다

/ 김순교 선교사(남아시아 A국)

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cts29빌리지에서 지내면서 매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오가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어느 날 ‘순교’라는 단어가 내게 다가와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매일 보는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내가 다시 만나야 할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가끔씩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건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매일 이곳을 오가는 내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순교를 생각한다. 순교는 제자도의 실천이고, 순교는 제자도의 열매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 16:24).

제자도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신 곳에 가서 맡겨 준 사람들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지키게 하는데(마 28:19-20) 그것이 순교다. 순교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이들이 순교를 한 결과로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좇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순교다. 순교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선택하시고 순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인 터툴리언의 말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피 흘림은 경영학과 마케팅, 심리학에 자리를 내 주었다. 순교는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봄을 이뤘으나 피 흘림과 순교가 사라졌다. 순교의 피 흘림이 사라지니 순교의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성과주의가 판을 친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지에 해외 지사를 세우고,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기업의 해외 주재원들처럼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교회는 순교를 통해 해외 지교회나 지사를 확장하니 만족하고, 선교사는 해외 거주 직장인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순교를 가르치지 않는다. 순종과 헌신, 제자도의 목격지이자 쓰디쓴 열매가 순교지만 화려한 꽃인 순교의 성장만 가르친다. 언젠가부터 순교는 선교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고처럼 취급된다. 선교지에서의 순교자는 모험주의자,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 교회는 순교를 가르쳐야 하고, 제자리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중연 성도(강서공동체)

나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다. 할머니, 어머니, 누나와 함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달란트로 시장에서 먹고 싶은 간식을 먹기 위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했던 기억이 있다. 중등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아 만화책들을 몽땅 버리고 복음성가만 들고 성경책만 읽으리라 다짐도 했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존재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인이 되었다.

대학생 시절에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별 받을 것 같아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루하루를 버텼고, 주일에는 기독교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점초청소를 열외 해야 했는데 이 등병과 일등병 때에는 선임들의 눈치가 심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담대하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다.

첫 직장에 취직하고는 대학청년부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 했다. 주일예배만 근근이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무렵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고 기도한 끝에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나와 내 가정의
미래가 기대된다

날 갑자기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하는 원망도 했었다. 그즈음 아내의 권유로 함께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에서 주최하는 전도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이 있었다. 특히 훈련 중에 사영리를 통한 노방전도 경험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 나는 아내의 권면으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신자 과정을 거치면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성경을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양육자 부부의 이웃사랑에 감동도 받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받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아내 그리고 뱃속의 아기가 함께 만들어 갈 가정의 미래가 기대된다.

■ 유아세례 간증



/ 유아 김민상(부 김준홍, 모 이주현)

강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

아내가 민상이를 임신한 동안 여러 버거운 상황들로 인해 세 번이나 하혈을 했다. 그래서 ‘제발 뱃속에서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고 기도했다. 그 아이가 감사하게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예상보다 유아세례가 반년 늦춰졌지만, 아이가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받게 된 것 같아 오히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있다.

아이의 이름은 ‘강인할 민, 높일 상’이라는 뜻의 한자를 썼다. 구약 시대 많은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강인하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민상이는 좋지 않았던 태중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받은 축복의 아이이기에 그 이름대로 살아

갈 줄 믿는다.

민상이가 태어난 지 30개월이 된다. 모유를 먹던 신생아가 잠이 들 때 “하나님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어엿한 세 살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 점점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이가 강인해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지만,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민상이가 되기를 기도한다.

민상이를 비추고 있는 예배당의 환한 불빛처럼 민상이도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환히 비추고 전하기를 기도한다. 아이의 마음 속에 심어진 이 빛이 조금씩 커져서 본인의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까지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민상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기를 소망한다. 민상이가 강건한 하나님의 용사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성준면 성도(강남E공동체)

과학이 진화론의
허구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가장 대치되는 세상의 이론이 진화론이다. 학창시절 누구나 진화론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배우며 믿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진화론이 허구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고,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보아왔던 많은 생명체들의 환원 불가한 복잡성을 배우고,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인간의 수명 변화를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제한이 없으신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연대측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화산폭발 산물인 우라늄, 칼륨, 두버륨은 말할 것도 없고,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도 전제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진화론의 허구를 실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못된 학문의 결과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 철학이 성행하게 되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이 발표되고 유럽은 1800년대, 미국은 1900

년대에 인본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세기의 악인들이 인류 역사에 크고 아픈 상처를 남게 된다. 지금 이 시대도 인본주의적 정치 이념으로 걸으려는 의로운 듯 보이나 창조질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인간의 교만함이 가장 큰 원인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모른 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재앙을 허락하신다고 이해한다.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진화론임을 알았을 때, 어쩌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과학 역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이 진화론의 허구는 증명할 것이라고 믿는다. 창조과학연구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동역해야겠다.

장로칼럼

자기중심성 벗어나기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공동체)

어느새 나이 70세를 코앞에 두고 보니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주님의 은혜로 이 나이까지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이 새삼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 자녀와 손녀들은 어떻게 인도해주실까?’이다. 가능하다면 내가 지나온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최대한 짧게 겪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책으로 써서 남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두란노)이다.

내 욕심대로 쏟아놓으면 자손들이 읽다가 중간에 포기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어느 분이 강조한 대로 “신앙이란 B0F”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앙이란 A가 아니고 B란다”고 이야기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A가 아니고”라는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지난 4년 동안 인도해오던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세미나에서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들이었다. 학생들과 자기중심성에 대해 나누면서 이것이 곧 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자기중심성을 주제로 잘 설명된 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것이 책을 내게 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2부로 나누어 1부는 자기중심성 곧 죄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2부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주신 방법을 다뤘다.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버린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기주의, 자기 소견만 옳은 것처럼 착각하기, 교만, 근거 없는 권리 주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권력에의 집착,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즘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다보니 자기중심성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제가 곧 신앙의 왜곡인 것과 이 신앙의 왜곡이 개인 간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수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2부를 저술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목상을 많이 했다.

책의 2부에서는 자기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을 내 나름대로 요약 정리했다. 1장에서는 ‘창조-타락-구원-심판’의 기독교 역사관을 가능한 쉽게 서술해보려고 했고, 이러한 진리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2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3장 ‘그러면 나는 진정 누구인가?’를 이야기했다. 4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한 정체성을 가지고 대계명(마 22장)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는 것’과 5장 ‘사람(이웃)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믿음생활을 할 때 반드시 겪게 될 사단의 공격(영적전쟁)을 6장에 기술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희생적 사랑(아가페)을 드릴 때, 겉으로는 부담감과 손해를 지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며 기쁨임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맺었다.

책으로 쓰고 보니 당연한 기초지식들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마음도 든다. 우리 자손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혹시 내 책을 읽은 분들이 있다면 비평도 해주시기를 바란다. 본인들의 경험과 생각을 추가해도 된다. 다음세대에게 우리 세대가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권사칼럼

기도하고 사랑하며...



신명숙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나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진리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월의 터널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이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면서 가정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급기야 자녀까지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30여 년을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일해 왔던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눈빛에서 아무런 의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 힘들지요? 이제 쉬세요, 제가 해 볼게요”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녀를 키우는 것과 살림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 드리면서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니 그때부터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살림하는 일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나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전문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하지 않던 일에 적응하느라 몸과 마음도 지쳤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 울며불며 3년 동안을 기도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고 나니 뽀뽀이 흠어져 살던 우리 가족이 마침내 보금자

리를 마련해서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지나온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은 광야 훈련이었다.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였고, 채워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문제와 상황들조차 기도하게 하셨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는 강한 기도훈련을 시키셨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열방을 보며 꿈꾸게 하셨다. 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신다.

지금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 돌봄을 10년째 하고 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 묵묵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이를 보살피던 중에 아이 엄마가 스스로 교회에 가겠다며 나에게 신앙상담을 해왔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구나! 부족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온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10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 엄마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한두 번 건넸던 것이 다였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했는 뿐이다. 아이 엄마는 부천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과정을 신청했다. 지금도 나는 이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신앙에세이



이길탁 목사
(강남D공동체)

오래 전,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난 즈음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하던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꼼꼼히 챙겨보았던 때가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는 매회 통제 불능 아이들이 나온다. 유심히 보니 그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었다. 사랑의 전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사랑의 전달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결국 통제 불능 삶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절제 없는 사랑의 방식이 원인

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롬 1:25).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신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둘 때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에 절제 없는 사랑을 쏟아 붓는다. 너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방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 통제한다. 이러한 사랑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삶이 옳아지게 만드는 것

을 종종 보게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둘 때 그것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함을 보게 된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했던 것의 결말이 잘못된 방식의 절제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가 우상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 어떤 부모들은 완벽한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 훈련을 시키면서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로 위로하지만 소용 없다. 그것이 마음의 우상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

또한 자녀가 불만스러워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버릇없는 응석반이로 키울 수도 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훈계의 균형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

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확실한 길이다.

과도한 사랑은 언제나 집착으로 변질되고, 적당한 거리를 무시한 사랑은 무례한 사랑으로 변신한다. 때문에 최고의 자녀교육이란 어쩌면 부모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다. 그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통해 건강한 관계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다. 아빠로서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과연 이 녀석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문제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긴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심방을 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문불출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심각한 얼굴을 하고 느헤미야의 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편인 것처럼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는 안 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11~13절).

느헤미야가 교활한 음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이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는 대답입니다. 11절 시점까지는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안 것은 12절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아주 가까운, 신뢰했던 사람이 말하면 사실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의 제언이 나를 위한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 편에서 말하는 것이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순결한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별력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거짓과 음모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처럼 생명을 내걸고 지키려고 할 때 분별력이 임합니다.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영적 지도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왕이 그랬습니다. 웃시야 왕도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부딪히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처럼 집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순결한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심으로 교활한 음모를 간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겼다

느헤미야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겠느냐? 나는 차라리 율법을 지키며 내 생명을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거짓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습니까? 왜 거짓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입니다.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단계에서 교활한 음모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겼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반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15~16절).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모든 이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교회를 악한 집단처럼 매도하고,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쁘게 보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영역을 보면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세상을 향한 섬김, 나눔, 봉사를 모두 매도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려고 했던 이들이 과연 교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곡되게 세상에 소문을 뱉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더욱 순결한 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음모와 탐욕이 가득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이 순결한 지혜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반드시 이긴다는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삶에서 거짓과 음모와 교활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탄자니아는 올해 3월 초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면서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잔지바르 지역도 모든 예배와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내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때 시장에 가면 저를 ‘코로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휴교하면서 저도 시장가는 일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없어 대부분 자가격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는 자와 함께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계속 사역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에서 긴급구호기금을 지원받아 차체차게교회와 마캉갈레교회

가 있는 두 마을에 마스크, 세제, 설탕을 298가정 주민 1,521명에게 나눠주며 코로나19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구호품은 마을주민과 유치원생 가족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한 마스크는 성도 중에서 재봉이 가능한 집을 찾아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슬림 주민들이 교회에서 주는 코로나19 구호품을 못 받는다는 소문이 돌러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이겨내자고 현지 목사님과 결의하고 구호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염려와 달리 거의 모든 가정이 조용히 코로나19 구호품을 받아갔습니다. 마을 이장도 코로나19 구호활동 시작부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는 날 교회의 이웃들이 감사의 선물(현지 과자와 음식)을 목사님 가정에 가져와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구호활동을 선택

던 파스칼 목사님은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웃들에게 선물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라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7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미장가니마을을 시작으로 2차 오디오성경(FCBH 성경)듣기 심방을 했습니다. 모든 마을이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던 것이 조금씩 열렸기 때문입니다. 파스칼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전화하며 오디오성경 듣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었습니다. 11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코로나19를 피해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다른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오디오성경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캉갈레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2개 그룹을 모아 오디오성경듣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방문에서는 코로나19 구호품을 못 받은 가정에 설탕과 세제를 나눠주고, 빵을 선물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구약을 듣던 그룹원

이 성경내용을 이해 못하면 목사님이 답변해 주곤 했는데, 솔로몬이 후궁을 300명이나 두었다는 내용에 시험이 들어 신약 듣기로 건너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중결혼에 시험 든 이들이 구약의 내용에 마음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11개 마을 중에서 7개 마을이 구약을 듣던 중에 신약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약을 들어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다’고 구약듣기를 격려하기 위하여 2차 심방을 했습니다.

심방하면서 조사해보니 한 그룹에 1~2명 정도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3차 심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성경책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왔는데 주님이 재정을 채워 주셔서 본토 서점에서 성경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선한 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다비다 선교사(탄자니아)

골방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CGNTV의 콘텐츠를 통해
선교의 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 CGNTV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

CGNTV와 함께 해온 사역자들의 간증으로
미디어선교의 중요성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방송 11/1(일) 1-4부 각 예배 후 1, 2부 순환 방송

진행 방송인 박지윤, 가수 김영우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

낙도를 섬기는 이정환, 신영삼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나눕니다.

방송 11/1(일) 오후 8시 10분

내레이션 배우 명세빈



정기후원 특집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대중가수의 정점에서 목회자로 변신한
조하문 목사의 삶을 통해 가장 귀한 가치를 찾습니다.

방송 10/31(토) 오후 4시 50분

출연 조하문 목사



CGNTV 콘텐츠는 복음을 싣고
한 영혼을 위해 다가갑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CGNTV와 함께해주세요.



신규후원
바로가기



특별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정 기 후 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후 원 문 의 02-796-2243

* 11월 1일은 CGNTV 정기후원 주일입니다.
다음 주 정기후원 주일 행사 시 전 캠퍼스에서 드림통을 수거합니다.